주부신행담 시련을 넘어서 ㊦

잘 살고 못 살고가 내탓인 걸 알았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자 남편은 뜻하지 않던 실직을 해야했고, 결혼 생활은 시작과 함께 깊은 고통의 수렁에 빠져 비참했다. 살림을 줄이다보니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했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보일러가 터져 한겨울을 날 수 없게 됐다. 이틀 신정연휴는 친정에서 자고, 3일째 되는 날은 시어머님이 옆집 가서 주무시고, 4일째는 겨우 겨우 방 한칸을 구해 같이 잤다. 설상가상이라더니, 이리저리 옮겨다닌지 5일째가 되는 날 전세금 천3백 만원을 빌려준 친구가 찾아와서는 풍기로 내려가게 됐다며 돈을 돌려 달라고 했다. 한 겨울에 더군다나 보일러가 터진 방에 누가 들어올 것이며, 방을 빼 돈을 돌려주고 나면 당장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할 지 막막했다.

집이래야 이불장 하나, 작은 냉장고 하나가 전부여서 이사할 걱정은 없었지만 4월말이면 태어날 첫아이는 어떡해야 할 지 눈물이 앞을 가렸다. 전세금을 구해오겠다며 나간 남편은 결국 전세금도 구하지 못하고 온다간다 말도 없이 집에는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 사정이 급해진 나는 벼룩시장에 광고를 냈고, 겨우겨우 방을 뺐다. 방을 뺐지만 가진게 없으니 딱히 갈 곳도 없었다. 돈을 구하러 백방으로 쫓아다녀 보았지만 누가 선뜻 1천여만원이나 빌려줄 사람은 없었다.

* 그러나 딱 한사람, 남편과 나를 중매했던 아주머니가 누구한테 사정을 들었다며 그동안 내가 들었던 곗돈과 맞바꾸어 미리 돈을 꿔 주셨다. 그 돈으로 목동에 1천8백만원 짜리 전세방을 얻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 번도 계라는 것을 해 본 적이 없었던 남편과 나는 다달이 곗돈 15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쟁을 치러야 했다. 남편이 제대로 된 직장을 다녔으면 사정이 좀 달라졌을지 모를 일이지만 그렇지 못했던 관계로 50만원씩 3명에게 돈을 빌어 겨우겨우 한달을 넘겼던 나는 더 이상 지쳐 이 세상을 살아갈 엄두가 나질 않았다. 자살이라도 하고 싶었다. 고통스런 이 세상을 그만 살고 싶었다.

매일 새벽 부처님을 찾아 뵙고 지극 정성으로 예불하고 기도를 했지만 집안은 조용해질 날이 없었다.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일만 저지르는 남편, 시어머니의 뜻하지 않았던 사고까지 견디기 힘든 일들이 자꾸 일어났다. 남편이 사전에 의논 한마디 없이 차를 계약했다며 몰고 와 신경이 곤두서있는데 시어머니께서 방에서 넘어져 손목 뼈를 부러뜨리는 바람에 그나마 남편 대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시어머니 수발을 들어야 했다. 아이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둘째 아이까지 생겨 이만저만 마음고생, 몸 고생이 말이 아니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할만큼 무능한 남편을 어쩌려고 결혼을 시켰는지 시어머니가 원망스러웠다. 시집오기전 겪었던 고통으로 모자라서 겪어야 하는 고통이라면 너무나 가혹했다.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모두 내업의 소산일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왜 내 업덩어리는 이다지도 큰 것인지 항의라도 하듯 원망의 눈초리로 법당에 좌정하고 계신 부처님을 올려다 보면 부처님께서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지금에서야 부처님께서 얼마나 많은 무언의 진리를 주셨는지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부처님까지도 날 농락하고 있다는 피해의식까지 생겨 불상을 내동댕이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었다.

살림이 조금씩 나아져 가나 싶었더니 IMF가 터져 98년 7~8개월여를 생활비도 없이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봉지 쌀로 겨우겨우 살았고 공과금은 연체에 연체를 거듭했다. 4살, 2살인 아이 과자 한봉지도 제대로 사 먹이지 못하는 비참한 날들을 보내야 했다. 차비가 없어 절에도 가지 못하고 아이들 데리고 집 근처 절에 가 점심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다시피 했다. 아이들을 안고 부처님 앞에서 울기도 수없이 울었다. 그러나 살아야 했다. 아이들 때문이라도 다시 일어나야 했다.

다시 용기를 내서 한마음선원에 갔다. 한달에 한번 금요법회에 참석하면서 어느날 대행스님을 친견했는데 그때는 대행스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그런 스님이 계신가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참선법회에 참석하면서 스님이 말씀해 주신 '주인공'을 알게 되었다.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

모든 갈등과 문제가 나로 인해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의 힘으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 주체라는 것을 알았다.

길거리 행상을 시작했다. 도매시장에서 물 좋은 생선을 받아와 팔았다. 여름엔 찌는 햇볕에 현기증이 났고, 추운 겨울엔 살을 에이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마음은 늘 즐거웠다. 나의 노력으로 잘 살고 못 살고가 결정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기 때문이었다.

2년여의 노력 끝에 경동시장 한 구석에 제대로 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생선에 야채까지 갖다 팔면서 시장 사람들과 형님 아우하면서 사람사는 정을 나누며 살았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커 주었고, 남편도 마음을 잡고 시장에 나와 장사를 도왔다.

대행스님 말씀대로 내 마음 한 번 고쳐 먹은 후부터는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조금씩 사정이 나아져 갔다. 우선 누굴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져 좋았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한마음선원에서 주인공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아마 내 나이보다는 곱절도 더 먹어 보이는 험한 인상의 사나운 아줌마가 되어있지 않았을까 싶다. 부처님 법은 소리없이 우리들 가슴에 와 닿는 마력을 가지신 것 같다. 그렇게 오랫동안 절에 다니며 부처님 법을 만났으면서 한 생각 돌리고서야 이제 겨우 알게 되었으니 내 어리석음이 부끄럽기 그지없다. 다른 도반들은 나 같은 우를 범하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부처님 법 가까이에 다가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도 부처님 앞에 앉는다.

김형진(서울시 서대문구 녹번동)

그림 · 문병성

묵은 천년을 보내며, 새천년 새마음을 위한

새천년 맞이 내소사 타종 축제

내소사의 전나무 숲 은은한 향기는 예와 오늘이 다르지 않는데 지구촌 곳곳은 지금 새 천년을 맞이하는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에 내소사는 지혜롭게 묵은 천년을 보내고 복된 새 천년을 맞이하는 행사 준비에 온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묵은 천년동안 지은 우리의 악업은 참회 용서하고 좋은 일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희망이 넘치는 새 천년을 맞이하고 기원해야 합니다. 한 가정이 조상을 잘 섬기고 부모의 뜻을 잘 받든다면 이것이 가정의 구심점이 되어 한 가족이 원만한 화합을 이룰 것이요, 한 국가도 그 민족의 근원을 찾아서 조상의 얼을 잘 받들고 숭배한다면 한민족도 한 마음이 되어 크게 화합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한 마음만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전 인류를 평화롭게 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은 모든 일이 다 소생하게 해 주시라'는 내소사 창건 스님의 원력처럼 묵은 천년은 참회와 용서로서 악을 소멸시키고 새 천년은 조상을 잘 섬기는 공덕으로 가정, 사회, 민족이 화합하고 [illegible] 인류의 평화가 여기로부터 새롭게 소생되는 아름다운 새 천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다음과 같이 [새천년 새마음 [illegible] 타종축제]를 베풀겠사오니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주지 진원 합장

사회 : 김방조

식전행사

[illegible] 10시~11시까지

제1부 · 묵은 천년 보내기

1999[illegible] 11시~12시까지

참[illegible] 묵은 천년의 악업을 소멸시킨다.

	내 용	비 고
[illegible]	[illegible] 기상	임원식과 Zero Power
상여제	[illegible] 악업을 장사지낸다	서도소리예술단
[illegible]	[illegible] 풀어낸다	발림무용단
[illegible]	[illegible] 소리	서도소리예술단
[illegible]	일기성 명창	국립창극단
[illegible]	[illegible] 새천년타종	각계인사 대표

제2부 · 새천년 맞이하기

2000년 1월 1일 0시~01시까지

조상을 잘 섬기는 공덕으로 가정과 민족 전 인류가 화합한다.

항목	내 용	비 고
타종제 II	범종 21번 타종	각계인사 대표
메시지 낭독	새천년을 맞는 우리의 각오	진원
시낭송	하나가 되어	장애인 시인
초청가수	송악사 外	김태곤
태평무	천년의 태평을 기원한다	발림무용단
대동제	강강술래	참가자 전원
풍등제	풍등을 띄운다	조계종 봉축단

※행사에 이어 월명암으로 이동해서 2000년 새해 해돋이를 보며 회향합니다.

※기원의 만등불 밝히기 「등(개인등, 가족등)」 예약 접수 받습니다.

● 일시 : 1999년 12월 31일 오후 10시~2000년 1월 1일 새벽까지

● 장소 : 부안 내소사 ☎0683-583-7283

전북 부안군 진서면 적포리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내소사

마하몰... 새천년 맞이 추천 상품 특선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 02) 732-1522(직) 02) 737-8881

인터넷 주문: http://www.mahamall.co.kr

수암 만다라 옥침

수암만다라옥침은 두개의 회전구 표면에 각기 약 300여개의 뾰족한 옥침과 내부에 강력한 영구자석과 천연옥을 합성시켜 원적외선과 자기력을 발산하도록 만들어 졌다. 수암만다라옥침으로 손바닥의 경혈을 자극함으로 효과는 수지침과 동일하며 옥과 자력의 상승작용으로 그 효과를 더욱 높여준다.

■가 격 : 30,000원

■재 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훼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7가우스 X 4개

영남범음범패집 1 재대령(비디오) 영남범음범패집 2 관욕

이 비디오는 인간문화재 어장(魚丈) 문구암(文九菴) 스님의 영남범음범패집의 소리와 그 의문집으로 출판된 영산범음집(靈山梵音集)을 한데묶은 것이다. 영남범음범패집의 방대한 소리들 중 일차로 천도재(薦度齋)에 널리 쓰이는 대령, 관욕 부분을 먼저 제작하였다.

■가 격 : 1집 25000원/ 2집 25000원

바른자세 건강방석 참선명상방석

바른 자세가 건강한 정신과 편안한 마음을 만듭니다.

현대인들의 척추보호 및 교정을 위하여, 오랜시간 참선이나 명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혁신적인 방명품.

이젠 바르게 허리펴고 건강하게 생활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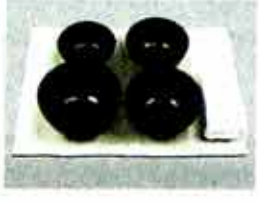
■가 격 : 27,000

사이즈 - 가로 43 cmX 세로39cm

실용신안 특허 공개 실 19998-025009

의장등록 출원 제 14387호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발우



여기 이 '황토 질그릇 발우'는 순수한 황토와 인체에 유해한 화공약품이 아닌 낙엽 태운 천연유약과 1300도 불의 조화로 형성된 투박하고 자연적인 옹기로써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본 제품은 해인사 율원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한 와발우(瓦鉢盂)이다.

■가격 4합 : 6만원 - 무게 2.7kg

2합 : 3만원 - 무게 1kg

화엄변상도(華嚴變相圖)

마하몰에서는 천여 년 동안 팔만대장경판과 함께 해인사 장경각에 소장되어온 고려불교 예술의 결정(結晶), 고려(高麗) 화엄변상도(華嚴變相圖) 전 80장 완본(完本)을 순한지인 영담선지(影潭韓紙)와 특수 인쇄기법으로 완벽하게 간행하여 불자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규격 : 57.5 (가로) X 23cm (세로))

1. 다시 만나기 어려운 고려 화엄변상도 전80장 한본
2. 팔만대장경판과 함께 해인사 장경각 소장본 영인
3. 150여 페이지에 달하는 화엄변상도 해설 책자 증정 (前 해인사 講主, 現 해인사 律院長 宗眞스님 해설)
4. 전통한지의 맥을 이은 影潭스님이 제작한 최고의 순한지(純韓紙) 영담선지(影潭韓紙) 사용
5. 본 화엄변상도는 액자나 족자 또는 화엄병풍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본 화엄경 변상도는 100세트 한정판입니다.

■가 격 : 각 300,000원

불 자 반 야 반 지

불자의 자긍심을 세겼습니다. 16개의 큐빅은 보살의 16대력을 상징하며 테두리의 팔각은 팔정도의 수행을 의미 합니다.

■팔정도

정견(定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正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십육대력(十六大力)

지력(志力), 의력(意力), 행력(行力), 참력(慙力), 강력(强力), 지력(持力), 혜력(慧力), 덕력(德力), 변력(辯力), 색력(色力), 신력(身力), 재력(財力), 심력(心力), 신족력(神足力), 홍법력(弘法力), 항마력(降魔力)

■가 격 : 18K 130,000원

14K 120,000원

용량 : 16개 큐빅 / 금 1.5 돈

※호수에 맞게 제작하여 드립니다.